

김재준의 '자유사상' 연구

홍인표*

- I. 들어가는 말
- II. 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
- III. 김재준의 교육적 배경
-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김재준은 '변방의 사람'이었다. 변방의 사람으로서의 시작은 그의 태생적 환경에서부터 보여 진다고 할 수 있겠다. 김재준의 태생적 환경에 대한 이오갑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그가(김재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는 춥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은 한반도 북쪽 끝에 위치한 산간지대 마을이었다. 그곳은 가파른 땅에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야만 하는 '개척자들의 땅'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변방 지역은 정신적으로 중앙과 느슨한 유대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점에서는 중심에 대한 반감과 저항 의식 같은 것들이 배태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은 세도가들이라 해도 중앙 권력에서 밀려난 자들일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비나 학자라 해도 유배 생활을 하거나 이미 중앙에서 떠난 지 오래된, 말 그대로 '묻혀 사는 사람들' 이거나 그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기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때문이다.¹⁾

김재준은 일본과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친 후에도 당시 서북 기독교의 중심 지역이었던 평양이 아닌 변방지역 간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²⁾ 그가 약 3년 동안 활동했던 간도 또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영세민들의 '신천지'로서, 조선후기 정치기강의 해이에 따른 탐관오리의 발호와 대 재해로 인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걸고 도강(渡江)한 후 황무지를 개간하여 정착한 개척자들의 땅"이었던 것이다.³⁾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그리고 평생에 걸쳐 김재준은 '변방의 인물'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호칭에 함몰되어 평생에 걸쳐 한국교회 주류의 인물이 아닌 변방의 인물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폭넓게 확산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인해 '반공주의'가 이른바 신성불가침의 용어로 군림해왔던 것처럼, 한국교회에서의 정통주의 또한 신성불가침의 용어로 군림해왔기에 일찍이 '자유주의자'라는 호칭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던 김재준은 평생을 한국교회에서 변방의 인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53년 기독교장로회의 분립은 김재준이 결국 변방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단 분립의 원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넘게 되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1953년 제2차 장로교의 분열로 인해 김재준을 중심으로 하여 분립되어진 대한기독교장로회(기장)의 교회에 속한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여전히 기존

1) 이오갑, 『자유의 맥락에서 본 장공 김재준의 삶과 사상』, 『신학사상』 제 141집, 여름호, 2008, 11쪽.
2) 김재준은 1936년 8월부터 1939년 9월까지 간도 영정 은진중학교에 봉직하면서 3년 동안 간도에서 청년 교육에 헌신하였다. 간도 은진중학교에 봉직하는 동안 1937년에 동만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37년 5월부터 1938년 2월까지 개인잡지인 월간『십자군』을 발간하였다. 김경재, 『김재준 평전』, 삼인, 2001, 231쪽.
3) 윤병석,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9-15쪽.

의 교단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1959년 한국 장로교단의 세 번째 분열과 이후에도 수차례의 분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형룡을 중심의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이 오늘날 한국 최대의 교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재준의 대한 기독교장로회는 오늘날 여전히 규모가 작은 교단으로 남아 있다.⁴⁾ 1952년 4월 29일, 대구 서문교회에서 회집된 제37회 장로회 총회에서 김재준을 제명 처분하고, 그와 동조하던 캐나다의 선교사 윌리엄 스콧을 함께 제명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신학대학(조선신학교) 졸업생은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던 것이다.⁵⁾

김재준은 인생의 황혼기에 조차 변방의 사람 일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변방의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도 '떠돌이'⁶⁾였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지도 모른

4) 2010년 현재 장로회 합동 교단은, 교회 11,456 교인 2,953,116의 교세를 이루고 있으며,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홈페이지 <http://www.gapck.org/index.asp> 2012년 10월 13일 오전 1시 45분 검색. 2011년 현재 기독교장로회 교단은, 교회 1600 교인 305953명이다. 이수찬 편집, 『제97회 총회 보고서』, 고려인쇄소, 2012, 771쪽.

이만열은 군사독재 시절 한국교회의 보수 교단들이 성장을 이루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만열에 따르면 한국전쟁 후 독재정권의 산업화 시대에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게 되었는데 이 때 보수적인 교단들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기독교장로회의 경우 “개인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화, 인권, 노동운동 등으로 사회의 구조 악과 싸우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른 장로교단들 만큼 양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뉴스엔조이 인터넷 신문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925>, 2012년, 10월 13일 오전 2시 접속.

이와 같은 논지에 있어서는 박정신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군사독재 시기 합동파와 고려파 같이 기독교인의 정치적 행동에 반대하였던 보수적인 교단들은 1974부터 1979년까지 70%를 웃돌 만큼 인상적인 성장을 했던 반면에 박정회에 대항하는 기독교인 활동을 이끌었던 기장파와 같은 진보적 교회 집단은 1971부터 1977년 까지 단지 11%의 성장에 불과하였는데, 당시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90%에 가까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공부, 부흥회, 그리고 새벽, 철야기도회와 같은 보수적 교회들의 주요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박정신의 언급 또한 이만열의 논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45-46쪽을 볼 것.

5) 김정재, *읽글*, 99-100쪽.

6) 이 표현은 문동환의 자서전 제목인 『떠돌이 목자의 노래』와 그의 저서 『바벨탑과 떠돌이』에서 따온 것임을 밝혀둔다. 문동환은 오늘날 생태계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의 횡포와 세상 권력

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를 ‘떠돌이’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서울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평양으로, 간도로, 서울로 그리고 캐나다로,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평생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떠돌이 말이다. 그는 1940년 조선신학교 설립 후 20여 년 동안 교수로, 학장으로 봉직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부의 “대학의 총·학장 중 만 60세 이상은 총 사퇴하라”는 지시에 의해 아무 대책도 없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한 교직원 사택에 거주하던 그는 옮겨 앓을 집조차 없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⁷⁾ 현직에서 물러난 후 대한 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유유자적한 삶을 영위하던 김재준은 1965년 한일 굴욕 외교 반대 운동에 나서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1969년 삼선 개헌 반대 투쟁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⁸⁾ 그로 인해 김재준은 결국 박정희 정부에 의해 네 번의 가택연금을 당한 후 1974년 자녀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10년 동안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다가 1983년 영구 귀국한 후 1987년 소천 하기까지 김재준의 삶은 한마디로 ‘떠돌이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재준은 왜 평생에 걸쳐 떠돌이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1930년대부터 그를 따라다녔던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호칭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호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의 학자들 가운데 김재준을 일컬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일컬음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은 이들

을 지닌 강자들의 구축한 제도인 바벨탑에 의해 생존을 위한 터전을 잃고 유리방향할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떠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동환, 『문동환 자서전, 떠돌이 목자의 노래』, 삼인, 2009, 7-8쪽과 문동환, 『바벨탑과 떠돌이』, 삼인, 2012, 15-25쪽을 볼 것, 김재준의 삶 또한 평생에 걸쳐 초기에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는 표현과 방불하다고 볼 수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후기에는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가택 연금되고 캐나다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은 한 마디로 평생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 ‘떠돌이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7) 김정재, 윗글, 125쪽.

8) 김재준, 『범용기』, 풀빛, 1983, 332-60쪽.

이 적지 않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그와 평생에 걸친 대립적 경쟁 관계를 형성했던 박형룡을 필두로, 간하배(Harvie M. Conn)⁹⁾, 박용규¹⁰⁾, 김

- 9) 김재준의 '자유주의'에 대한 간하배의 지적은 참으로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간하배가 김재준을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하게 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김재준에 대하여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초부터 한국교회에 논쟁의 불씨를 가져온 중심인물"이며 "학문적 자유주의를 위해 첫제가는 한국적 근원(根源)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김재준의 논문들이 "그 당시 서구 자유주의 학파의 성경해석 풍조에 크게 반영되고 있던 자료비평에 철저히 전심하고 있음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준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김재준의 부활에 대한 논평이 보수주의가 즐겨 쓰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임을 매우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의 다 자신의 사상이 아니며 마지못해 꾸며낸 것"이라고 언급하며 "1950년대나 60년대에 공개적으로 쓴 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장동민, 이상규 등은 1930년대의 김재준이 구자유주의자들과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동민은 당시 김재준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글이 박형룡의 글인가 싶을 만큼 그에게서 자유주의의 냄새를 발견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간하배는 1950년대와 60년대 김재준의 어떤 글들이 1930년대 김재준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논증과 많은 차이가 있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그는 김재준을 자유주의자로 분류하였던 사학자인 김양선의 논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김양선의 글을 보면 김재준을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한 김양선의 논지 또한 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김양선의 논지는 아래에 언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볼 때 간하배가 자유주의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가 말하는 정통주의의 틀이 협소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하배, 『한국기독교신학사상』, 개혁주의신학협회, 1988, 53-66쪽,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생명의 양식, 2007, 210-15쪽,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165쪽을 볼 것.
- 10) 흥미로운 사실은 간하배와 박용규가 모두 김재준을 자유주의자로 분류함에 있어서 김양선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규의 견해는 간하배의 견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채필근, 송창근, 김재준을 일컬어 "탁월한 진보주의 사상가" 라고 표현한 것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박용규는 "김양선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김재준 목사는 한국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울 만큼 1930년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에서 공개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발표했다."라고 언급하며 김양선의 논지를 차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준의 신학은 적어도 1930년대 초에는, 통속적인 서구 자유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급진적인 자유주의는 아니고 신정통주의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며 "당시 한국교회가 의심 없이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보수적이었다"며 다소 열린 견해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용규가 간하배와 비슷한 논지를 따르고 있지만 1930년대 김재준, 송창근, 채필근 등의 활동에 대하여 "진보주의의 발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간하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박용규는 그가 최근 제29회 "长空사상연구 목요강좌"에서 발표한 글 "1930년대 신학: 정경옥의 자유주의, 김재준의 진보주

길성¹¹⁾ 등의 글에서 그러한 주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박형룡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박형룡과 사상적 연계성이 있는 신학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¹²⁾ 하지만 신학자, 혹은 교회사가로 활동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반 역사가로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학자인 김양선¹³⁾ 또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하여 김재준을 자유주의신학자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로서의 김재준 인식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폭넓게 확산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김재준 교수는 일본 청산학원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회포(懷抱)하게 되었고, 미주에 과학(過學)하는 동안에는 가장 리버랄한 웨스턴신학에서 이미 기초지어진 자유주의신학사상에 만족할 수 있는 신학 연구에로 매진(邁進)하였다. 그는 파괴적인 성경 비판을 감행하는 극단의 자유주의 신학자는 아니었으나, 성경의 독자적 영감과 성경의 역사적, 과학적 무오를 역설하는 보수주의 신학자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자유주의 신학자이었고 전통과 정통을 무시할 뿐

의, 박형룡의 정통주의』에서 김재준의 신학을 일컬어 ‘자유주의 신학’과는 차이가 있는 ‘진보주의 신학’으로 표현하였으며 김재준의 웨스턴신학교에서의 신학 수업에 관해서 “당시 웨스턴신학교는 프린스턴신학교와 같은 교단의 신학교였다고 언급하며, (윗글, 16쪽). 김양선이 ‘김재준이 자유주의신학’을 배우기 위해 웨스턴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박용규, 『한국장로교신학사상사』, 총신대학출판부, 1992, 174-182쪽. 박용규, 『1930년대 신학: 정경옥의 자유주의, 김재준의 진보주의, 박형룡의 정통주의』, 제29회 長空사상연구 목요강좌(미간행 논문)를 볼 것.

- 11) 김길성 또한 자신의 논지에서 김양선의 논의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필자는 과연 평양신학교와 숭실전문학교 출신의 서북 기독교계 인사였던 김양선의 김재준에 대한 시각이 과연 객관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김양선의 시각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 언급 되어질 것이다. 김길성, 『총신 100년과 그 신학적 정체성』, 『신학지남』, 통권 제 267호, 2001, 120-23쪽.
- 12) 이들은 모두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자들일 뿐만 아니라 총신대학교의 교수였거나 현직 교수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13) 김양선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장로교회의 목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가 김양선을 교회사가 아닌 일반 역사가로 분류하는 근거로는 첫째, 김양선이 신학사상을 연구하는 교회사가가 아니었다는 것, 둘째, 김양선이 특정교단 신학교의 신학과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한 것이 아닌 일반대학교인 숭실대학교의 사학과에서 교수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 아니라 그것과 대결하여 싸우려는 철저한 자유주의 신학자였다.¹⁴⁾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김양선의 언급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재준이 자신의 자서전인 『범용기』에서 “아오야마학원 신학부에서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과 프린스턴신학교에서의 ‘극단적인 정통주의 신학’을 경험한 후 이를 양기(楊棄)할 길을 찾아 고민하였다”라고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¹⁵⁾ 김재준이 공부했던 당시의 웨스턴신학교가 “프린스턴과 같은 교단 신학교인 데다 신학적으로 그리 차이가 없었다”라고 한 박용규의 언급을 볼 때 이와 같은 김양선의 언급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⁶⁾ 그러므로 이와 같은 김양선의 언급 또한 서북 기독교의 보수적인 관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⁷⁾ 김재준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적 표현은 최덕성의 언급에서 발견된다. 그는 김재준의 신학을 일컬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던 것이다.

김재준의 신학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부정신학(Nein-Theologie), 모두를 수용하는 포괄신학(Umgreifen Theologie), 마치 이것인 듯하기도 하고 저것인 듯하기도 한(Als-Ob) 신학, 어느 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높고 먼 공중을 떠도는 장공신학(長空神學)신학이다.¹⁸⁾

그는 김재준을 일컬어 “자유주의 신학자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정통주의 신학자는 더욱 아닌 인물”로 표현하면서도 간하배와 박용규의 논지에 기대어

14) 김양선, 원글, 189-90쪽.

15) 김재준, 『대전 전후 신학사조의 변천』, 『김재준저작전집 제1권』,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1), 375-76.

16) 박용규, 원글, 16쪽.

17) 김양선의 대략적인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07년 2월 의주군에서 출생, 1926년 선천 신명중학교 졸업, 1932년 평양 장로회신학교 졸업, 1934년 숭실전문학교 졸업, 1943년 장로회 총회 평안북도교구장 취임. 이와 같은 김양선의 약력을 볼 때 그가 서북지역 보수적 신앙의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유영렬 엮음, 『한국기독교 사학자 김양선』,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99쪽.

18) 최덕성, 『에큐메니칼 운동과 다원주의』, 본문과 현장사이, 2005, 371쪽.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하고 있다.¹⁹⁾ 그렇다면 김재준은 자신의 신학사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잠시 그의 언급을 인용해 보겠다.

“...나는 무슨 ‘주의’에 내 신앙을 주조할 생각은 없으니 무슨 ‘주의자’라고 판박을 수가 없오. 그러나 나는 생동하는 신앙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고 믿으며 또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소. 내가 어느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음질 한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소. 기어코 무슨 ‘주의’냐고 한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의’라고나 할까?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대로 써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며, 또 그렇게 믿고 있소...”²⁰⁾

김재준은 자신을 특정한 ‘주의자’로서 분류되는 신학자로서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정통주의에도, 자유주의에도 그리고 그가 이후에 자신의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 차용했던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에도 말이다.²¹⁾ 필자는 김재준 자신이 언급한 ‘주조할 수 없는 생동하는 신앙’,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의’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를 ‘자유’라는 범주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닌 ‘자유’의 신학자, ‘자유주의자’가 아닌 ‘자유인’으로 말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자유’의 신학자, ‘자유인’으로서 김재준의 삶의 배경과 경험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어린 시절 삶의 배경과 국내외에서의 교육적 배경이다. 이 논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자는 간헐적(間歇的)으로 박형룡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박형룡과의 비교를 통해 ‘자유인’으로서, ‘자유’의 사상가로서의 김재준을 이해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9) 윗글, 369-71.

20) 김재준, 윗글, 96-97쪽.

21) 장동민, 윗글, 159쪽.

II. 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

김재준은 자신의 자서전『범용기』서두의 여러 지면에 걸쳐 가족의 따뜻한 돌봄을 받으며 자랐던 유년 시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비록 그는 엄격한 유교질서에 입각한 가부장적인 성품을 지녔지만 풍류를 즐길 줄 알고 여생을 유유자적하게 보냈던 아버지와 '위신(威信)스러움'과 동시에 인자했던 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²⁾ 『범용기』에 언급된 김재준의 회상을 인용하여 보겠다.

나는 서당이 없어진 것을 무척 좋아했다. 아침에 아버님 앞에서 강(講)을 바치고 그 날 글을 배우고, 글제나 하나 받아 놓으면 그만이었다. 두세 번 읽는 것으로 암송 준비는 끝나는 것이니 나머지는 온통 자유 시간이다. 소먹이 풀 베는 재미에 낮들고 종일 싸다니기도 했다. 노성에도 올라가고 소도 옮겨 매고, 뒷산, 앞뜰, 가재골, 온통 내 천지였다. 언덕바지를 내리달릴 땐 다리에 날개 돋친것 같았다. 맨발로 다녀서 발바닥이 구두 바닥 같이 굳었다. 다섯째 숙부님과 함께 가재골에서 가재 잡이도 했다. 아버님은 시상이 떠올라 마음에 드는 시라도 지으시면, 다른 방에서 자는 꼬마(나)를 불러서 자작시를 읊어 주셨다. 특히 초가를 입추에서 추석에 걸쳐 푸른 하늘, 밝은 달, 맑은 바람, 익어 가는 곡식 등등의 계절이면 거의 매일 불러갔다. 그래서 아예 옆에서 자기로 했다. 그러노라니 나도 풍월을 알 것 같고 풍월의 감흥이 제법 느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한시 짓는 재주는 없었다.²³⁾

언급된 이야기는 김재준이 소학교에 들어가기 이전, 열 살까지의 이야기이다. 여기에 언급된 그의 회상을 통해 그가 가족과 친척들의 따뜻한 돌봄을 받으며 자유롭게 성장하는 어린 시절을 누릴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2) 김재준, 윗글, 14-15쪽.

23) 윗글, 21쪽.

물론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후 김재준이 미국 유학을 떠날 때 그의 가족들이 가족의 생계가 걸린 발을 저당 잡혀 여비의 일부를 마련해 주었고²⁴⁾ 김재준이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은진중학교의 교목 겸 성경 교사로 부임했을 때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을 만큼²⁵⁾ 가족들은 김재준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김재준은 자신의 아버지인 김호병씨에 대해 '글하는 분'으로 소개하였다.²⁶⁾ 여기서 '글 하는 분'이란, "유교의 선비 계급으로서 한문으로 씌어진 유교의 고전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지식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²⁷⁾ 김호병은 유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지식인 있었지만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구한말의 상황에서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하고 낙향하여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읽고 풍월을 벗삼아 시를 쓰며, 약초를 캐고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모아 글도 가르치며 유유자적 여생을 지내는 인물이었다.²⁸⁾ 이와 같이 유학에 풍부한 지식을 가졌던 아버지로부터 김재준은 소학교 입학 전에 이미 『통감』, 『대학』, 『중용』, 『논어』, 『맹자』등을 배울 수 있었고 심지어 여덟 살 무렵에는 각기 일곱 권씩 이었던 『논어』와 『맹자』를 암송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추 수 있었다.²⁹⁾

김재준이 어린 시절 통독한 동양의 고전과 한문 실력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³⁰⁾ 특히 그가 신학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었을 때 서양에서 학문을 뜻하는 '앎', '지식'을 전하는 객관적인 지식과 논리의 교육이 아닌 동양에서 학(學)을 의미하는 '깨달음'에 초점을 둔 교육, 주체와 객체가 통전되는 '깨달음'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실천하도록 함에 있어

24) 윗글, 80쪽.

25) 윗글, 125쪽.

26) 윗글, 13쪽.

27) 김경재, 윗글, 15쪽.

28) 김재준, 윗글, 14쪽.

29) 윗글, 21-22쪽.

30) 김경재, 윗글, 16쪽.

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³¹⁾ 이와 같이 김호병은 김재준에게 문학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학문적 자질까지 물려줌으로서 훌륭한 교사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던 것이다.³²⁾ 하지만 전통적 유교의 가치에 간혀있던 김호병은 끝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 "근엄하고 정중한 유교적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삶의 질서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이라는 진리탐구 방식이 몸에 밴 유생"이었고³³⁾ 유교의 높은 정신세계에 익숙했던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조폭(粗暴) 하고 철없이 떠들기만 하는 종교"로 보였던 것이다.³⁴⁾ 자신의 아버지를 개종시키지 못한 김재준은 "더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의 원수"라는 속담을 기억하며 혼자 탄식하곤 하였다.³⁵⁾ 말하자면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추구했던 "유교의 도덕적·철학적 정신세계는 전통적 샤머니즘이나 사이비 종교들 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치의 정신세계이지만, 김재준이 경험한 기독교라는 영적 종교의 진리 체험은 '영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제일 좋은 진리 세계'였던 것이다."³⁶⁾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프란체스코와 톨스토이 같은 무소유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을 만큼 말이다.³⁷⁾

김재준이 아버지로 부터 문학적인 재능과 학문적 자질을 물려받았다고 본다면, 그의 어머니로 부터는 자애로움 속에서도 위신(威信)을 잃지 않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재준은 자신의 어머니를 경원의 실학과 석학인 채향곡의 직계 사대 손이며 매우 인자하신 분이었다고 소개하였다. 그는 제사나 환갑 같은 큰일을 치를 때, 집안 어른으로서 수십 명 젊은 아낙네들을 각기 책임 주어 일 시키고 보살피시는 온유하면서도 '위신

31) 박재순, 『장공 김재준의 마음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장공사상 연구 논문집』,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302-3쪽.

32) 윷글, 302-3쪽.

33) 김경재, 윷글, 45쪽.

34) 김재준, 윷글, 99.

35) 윷글, 101쪽.

36) 김경재, 윷글, 45쪽.

37) 김재준, 『인간이기에』, 향린사, 1971, 217-19쪽.

어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감탄 하곤 하였다고 회상하였다.³⁸⁾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김재준의 언급을 인용하여 보겠다.

어머니는 내 입에서 쌍스러운 말이 한 마디라도 나오기만 하면 결코 가만두지 않으셨다. 반드시 책망하고 고쳐 주셨다. 언젠가 내가 못된 장난을 하다가 어머니께 들켰다. 어머니는 사랑방에 나를 혼자 데리고 가서서 머리칼에 빗질해 주시면서 책망하셨다. 나는 어머니 얼굴에 그런 ‘위신’이 감도는 것을 전에 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못된 장난하던 애가 후에 더 큰 인물이 됐다는 이야기는 있기는 하더라도!” 하시며 한숨과 함께 내 어깨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 때부터 나는 어머니를 존경하게 됐다. 아버지와 형님이 모두 내게는 압력 권위였기 때문에 나는 노상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께 호소했고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변호해 주셨다.³⁹⁾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재준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성장하여 일본과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에도 가족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과 나이 차이가 적지 않은 형을 대할 때조차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그것을 ‘압력권위’ 때문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재준은 이와 같은 압력권위에 대하여 “유교계층의 윤리가 인간관계에 경화증을 일으켰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느꼈다.⁴⁰⁾ 이와 같은 유교의 계층 윤리에 대하여 김재준은 내적으로 반발을 느끼곤 하였는데, 특히 그의 누이들이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로 인한 독단에 의해 결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모습을 목격하였을 때 그러하였다.⁴¹⁾ 김재준이 이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원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엄격한 유교의 계율에 대한 반발감도 작용하였던 것이다.⁴²⁾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질

38) 김재준, 『범용기』, 14-15쪽.

39) 윗글, 15쪽.

40) 윗글, 15쪽.

41) 윗글, 22쪽.

42) 김재준, 『인간이기에』, 217쪽.

서 속에서 변함없이 온유한 모습으로 중간자의 역할을 해주셨고, 집안 전체적으로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온유하면서도 위신어린 모습을 보여주었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김재준에게 있어서 무언(無言)의 교육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김재준은 엄격한 유교적 계율이 적용되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만강 유역 창골 마을의 넓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지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산세 좋고, 물 맑고, 사람 인심 좋은 산골 마을"의 환경은 어린 김재준의 품격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⁴³⁾ 엄격한 유생으로서 가부장적 질서에 익숙한 아버지로부터 '압력권위'를 느끼기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풍류를 벗 삼아 시를 쓰며 유유자적하게 삶을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김재준은 문학적 감수성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기반 또한 닦을 수 있었다. '위신스러우면서도' 자애로운 어머니로부터 인격의 감화를 받으며 무언의 교육을 받았던 김재준은 정서적으로도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록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자작자급하는 중농의 가정에서 생계에 대한 염려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의 환경은 김재준으로 하여금 여유롭고 따뜻한 심성뿐만 아니라 구속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적 감수성 또한 갖추도록 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언급 되는 그의 시처럼 말이다.

〈나비〉

가을에는 왜 푸르던 나뭇잎이 빨강계 물드는지
 가을에는 왜 빗방울이 눈이 되어 흰 꽃잎 쌓이는지
 나비는 왜 날고 싶어하며
 새들은 왜 쉬지 않고 지저귀는지
 사람들은 왜 필요 이상으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43) 김경재, 윗글, 11-12.

그것에 매달리는지 생각하며
어깨의 힘 빼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보세
너무 서둘지 말고 찬찬히 조용한 파도 굽이
푸른 바다 일으켜 세우며 굽은 파도소리
잔잔한 물결소리 노래하며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천년이고 만년이고 즐거운 마음 나비처럼
질푸른 하늘 훨훨 자유롭게 신나게 날아보세
흰나비 호랑나비같이⁴⁴⁾

Ⅲ. 김재준의 교육적 배경

1. 국내에서의 교육적 배경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열 살이 되기 이전에 동양의 고전들을 눈감고 암송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김재준은 향동소학교 3학년에 편입한 후에도 학업 성적에 있어서 1등을 놓치지 않는 등 두각(頭角)을 나타내었다.⁴⁵⁾ 향동소학교에서 김재준을 가르쳤던 교사는 그에게 이질(姨姪) 조카 되는 김희영 이었는데 그는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교육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신을 불어넣어 줌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화를 끼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⁶⁾

이와 같이 학업성적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인 김재준이었지만 향동소학교에서의 교육은 이후 그가 한국교회의 신학자로 활동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되는 교육적 배경으로서 첫걸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다녔던 향동소학교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선교학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

44) 김재준의 시 <나비>는 다음의 글에 언급되어 있다. 김경수, 『한국 교계에 반짝이는 별』,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장공 이야기』,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27-28쪽.

45) 김재준, 『범용기』, 24쪽.

46), 윗글, 23-26쪽. 김희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 논문의 11쪽을 참조할 것.

라 기독교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사립학교 또한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준은 선교사를 만나 교분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김재준과 평생에 걸쳐 대립적 경쟁관계를 형성했던 박형룡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박형룡의 교육적 배경을 보면 신성중학교의 기초과정에서부터 미국유학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교육 과정이 선교사들과 교분을 갖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박형룡은 “신식학교인 소학교를 여섯 군데 다니면서 신학문을 배우다가 15세 때 의주 양실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가 거쳤던 소학교들의 공통점은 이들 학교들의 교육 이념이 기독교와 서양의 문화 그리고 한국 민족주의를 결합한 교육 이념이라는 것이다.⁴⁷⁾ 박형룡은 이들 신식 소학교에서 공부한 후 평안북도 선천에 있는 미션스쿨인 신성중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 선교사들과 본격적인 교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처럼 신성중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은 그의 척박했던 가정환경에 기인된 바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김재준이 자립적인 중농의 가정에서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버지로부터 한문과 동양고전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술을 좋아하여 가산을 탕진하기 까지 했던 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박형룡은 15세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 신성중학교에 입학한 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학을 할 수 밖에 없었다.⁴⁸⁾ 선교사 소안론(T. Stainley Soltau)은 당시 15세의 나이에 신성중학교로 찾아온 소년 박형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면지투성이의 껍질죄해 보이는 한 소년이 선교 학교(신성중학교)에 나타나 입학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는 수업료를 낼만한 돈이 없었지만 교장은 소년들에 대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온 젊은이들의 성격을 판단하는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었습니

47) 장동민, 윗글, 32-33쪽.

48) 윗글, 30쪽.

다. 그는 박형룡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입학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반에서 일을 하도록 배려해줌으로서 식비와 수업료에 필요한 돈의 일부를 벌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⁴⁹⁾

15세의 나이에 가족을 떠나 신성중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던 박형룡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선교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박형룡은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우수한 성적으로서 선교사들의 기대에 부응하였다.⁵⁰⁾ 박형룡은 신성중학교를 졸업한 후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송실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이후 송실전문학교의 교수이며 평양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선교사 마포삼열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이른바 한국교회의 '주류'에 자리매김을 함으로서 한국교회 신앙과 신학에서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성중학교에서의 3년의 기간은 박형룡이 선교사들과 교분을 맺게 되는 첫 걸음으로 작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형성된 선교사들과 우호적 관계는 이후 그가 한국교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함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이다.

박형룡과는 반대로 김재준은 선교사들과 교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접하고 선교 학교에서 공부를 함으로서 선교사들과 교분을 가질 수 있었던 박형룡과는 다르게 김재준은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 상경했던 20대의 나이에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가 기독교를 접하고 회심을 체험한 이후에도 선교사를 만나 교분을 맺을 기회를 가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김재준은 이후 그가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선교사들과 교회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 선교사들과 교회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김재준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활동함에

49) T. Stanley Soltau, 『HYUNGYONG PARK, THE SAINTLY SCHOLAR』,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176쪽.

50) 윗글, 177쪽.

있어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미국 유학을 떠날 때의 한국교회의 반응이 “선교사의 추천생도 아니고 정식 장학생도 아닌 개인행동인데 교회에서 알게 뭐냐?”는 것이었고⁵¹⁾ 그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의 반응 또한 “선교사의 소개도 없이 노회나 총회의 추천도 없이 제멋대로 나갔던 사람을 이제 와서 우리가 알게 뭐냐?”고 하는 차가운 반응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⁵²⁾

이와 같이 선교사와의 교분의 유무뿐만 아니라 김재준의 한국교회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또 있었는데, 필자는 그것이 박형룡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김재준의 교육적 배경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도움 속에서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 남경의 금릉대학을 거쳐 미국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던 박형룡의 교육적 배경과 비교해 볼 때 김재준의 교육적 배경은 사실 빈약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받았던 교육적 배경의 빈약함은 특히 그의 국내 교육에서 발견된다.

김재준은 자신이 받았던 국내의 교육에 대하여 “내가 받은 기초 교육이란 초등학교 4년, 간이 농업학교 2년, 합쳐 6년 밖에 없다.”⁵³⁾고 언급하였다. 물론 그가 소학교 입학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한문 교육과 동양 고전에 대한 교육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로 부터 받았던 동양 고전과 한문 교육이 이후 그의 사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말이다.⁵⁴⁾ 김재준이 국내에서 받았던 교육적 배경을 볼 때 그가 받은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에 목적을 두었던 교육이 아닌 단순한 직업훈련의 성격이 강했던 교육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서울에 와서 다시 학업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고향에서 취득한 간이농업학교 졸업 자격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

51) 김재준, 『범용기』, 80쪽.

52) 윗글, 104쪽.

53) 윗글, 4쪽.

54) 김경재, 윗글, 15-17쪽.

에,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⁵⁵⁾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김재준은 속성으로 과정을 마칠 수 있는 YMCA 영어 전수과⁵⁶⁾ 3학년 과정에서 1년 동안 공부하였는데, 그 마저도 졸업장을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1년 내내 수업료를 지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⁵⁷⁾ 비록 졸업장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는 윤치호, 신흥우 등의 명사들이 강연하는 일요 강좌에 매주 참석하고, 『개조』, 『중앙 공론』하는 잡지들과 그 밖의 일본 잡지들을 섭렵함으로써 어쩌면 제도권 내의 교육 이상으로 자신의 지적 세계를 넓힐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⁵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적 배경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비정규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빈약했던 국내에서의 교육적 배경 또한 이후 그가 한국교회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되었을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2. 국외에서의 교육적 배경

김재준의 국외에서의 교육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가 일본 청산학원에서 공부할 때의 이야기를 잠시 인용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내 평생 사업(life work)이란 것도 나는 모른다. 신학에 들어온 것도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그렇게 된 것이고 목사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교회에 충성할 용의도 없었다. 일제 하 조선에서 할 수

55) 김재준, 윗글, 41쪽.

56) 김재준이 공부했던 YMCA 영어전수과는 한반도에서의 청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선교사 험버트를 중심으로 1904년에 시작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육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 과정은 직업교육, 즉 보충교육에 속하는 것이었다. 매주 일요일 마다 빠짐없이 열리는 일요 강좌에는 이상재, 윤치호, 신흥우 등의 명사들이 민족적 종교적 강좌를 열곤 하였다.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범우사, 1994, 104-10쪽.

57) 김재준, 윗글, 45쪽.

58) 윗글, 43-45쪽.

있는 일이 무어나? 그래도 교육 밖에는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게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후진들에게 뭔가 '훈'을 넣어 줄 접촉점이 된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기독교 사상과 신앙을 주축으로 한 유치원부터 소, 중, 고, 대학까지의 교육 왕국을 세워 보리라고 맘먹었다.⁵⁹⁾

김재준이 일본 아오야마학원 신학부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나 아닌 교육자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에 대하여는 먼저 그가 향동소학교에 다닐 때 자신을 가르쳤던 교사 김희영으로 부터 받았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김희영에 대한 김재준의 언급을 인용해 보겠다.

하루는 김희영 선생이 우리 삼사학년 아이들을 모아 놓고 통렬한 애국 연설을 했다. 그는 일인(日人)이 민비를 살해하고 궁궐 안을 마구 짓밟은 것, 이등 박문이 농락하여 합방까지 강행한 것, 개화의 선봉들이 장렬했다는 것, 이 준 선생이 할복하신 일 등등을 이야기하고 난 후 “사천 년 역사와 이천만 민족이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느냐? 지금도 애국지사들이 해외에서 독립을 위해 싸우고있다. 제발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대를 이어 싸우라”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통곡했다. 아이들도 덩달아 엉엉 울었다.....그 후(김희영이 떠난 후)의 향동 학교는 후손 없는 초상집 같았다. 이런 선생, 저런 선생 데려와 봤지만 선생 같지도 않았고, 선생답지도 않았다. 졸업기 가까이 되어서는 그나마의 선생도 가 버렸다. 그래서 김희영 씨가 회령에서 일부러 내려와 시험보고 채점하고 졸업식까지 치루어 주었다.⁶⁰⁾

김재준이 향동소학교에 다닐 무렵의 조선은 한일합방으로 인한 국권 상실로 인한 일제의 강압적인 무단 통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의 언급을 통해서 볼 때 김희영은 민족정신이 강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책임감 또한 남달랐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김희영의 모습은 어린 김재준

59) 김재준, 윗글, 70쪽.

60) 윗글, 25쪽.

에게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고 이후 자신이 평생 사업으로서 교육자로서의 길을 숙고하도록 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이다. 김재준이 서울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3년간 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 또한 그가 김희영으로부터 받았던 영향으로부터 기인된 바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⁶¹⁾

김재준이 소학교 교사로 일을 했던 이유에는 물론 생활인으로서의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가 서울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회심하게 되었던 신앙적 동기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재준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을 얻기도 어려웠던 소학교 교사를 직업으로 택했기 때문이다.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기 전 간이 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김재준이 회령 군청 직세과를 거쳐 웅기 금융 조합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금융 조합의 직원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소학교 교사 보다 안정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조합에 사직서를 내고 상경하기 직전, 김재준이 어떤 사람의 발을 대신 팔아준 후 두둑한 거간료를 손에 쥐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별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⁶²⁾

서울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김익두의 집회에 참석하여 “가슴이 뜨겁고 성령의 기쁨이 거룩한 정령을 불태우는 회심을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김재준은⁶³⁾ 톨스토이의 저작들과 아씨시 성 프랜시스스의 전기를 탐독하는 가운데 무소유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회심 체험은 무소유의 청빈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가치의 발견으로 김재준에게 경험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영적

61) 김재준은 서울 YMCA영어 전수과에서 공부한 후 귀향하여 함북 산골마을의 작은 소학교 들인 용현학교, 귀낙동학교, 신아산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였다. 김경재, 윗글, 32쪽.

62) 김재준, 윗글, 39-40쪽.

63) 윗글, 43쪽.

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김재준은 “돈은 하나님과 함께 섬기지 못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로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무소유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고 결국 “애당초 돈을 멀리 하고 오직 믿음과 청빈을 살자”라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김재준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소학교 교사의 직업을 택하게 된 이유를 이와 같이 회심 체험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재준이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평생 사업을 숙고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언급한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후진들에게 뭔가 ‘훈’을 넣어 줄 접촉점”이라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김재준은 김익두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여 회심을 체험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이후 3년 동안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경험 때문에, 물세례 같은 형식은 굳더더기라고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세례 받은 신자, 제직들에게서 별다른 인간 변혁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 있기도 하였다.⁶⁴⁾ 김재준의 이와 같은 경험은 이후 그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참석했던 노회에서 경험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귀국 후 참석했던 노회에서 “평화 없이 목사 탈로 굳어진 목사들과 장로들의 얼굴”을 보았던 경험 말이다.⁶⁵⁾

이와 같은 당시 조선 교회의 모습을 목격했던 김재준이었기에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 교회에 충성할 용의도 없었다”는 언급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⁶⁾ 그러므로 일본 아오야마학원에서의 유학 생활은 김재준으로 하여금 교육자로서 자신의 사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김재준이 아오야마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어떤 신학 이론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당시 아오야마학원의 학풍이었던 ‘자유’ 자체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잠시 김재준의 언급을 인용하여 보겠다.

64) 윗글, 52쪽.

65) 윗글, 104쪽.

66) 윗글, 70쪽.

청산학원이라면 '자유'가 연상된다. 학생이고 선생이고 간에 개인 자유, 학원 자유, 학문자유, 사상자유 - 모두가 자유 분위기다. 물속의 고기 같이 자유 속에 살았던 것이다....학원은 거의 절대 자유여서 그야말로 '백화쟁발'이었다. 기독교 학생들의 노방 전도대, 캠퍼스 내 전도대가 거리와 교정을 부산하게 하는가 하면 좌익 학생들의 사회주의 선전도 요란했다.⁶⁷⁾

이와 같이 아오야마학원의 학풍이었던 '자유'는 이후 신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김재준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그가 송창근 등과 함께 설립했던 조선신학원의 설립이념에서 확인되어진다. 1940년 개원 당시 김재준이 발표한 조선신학교의 이념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조선신학교로 하여금 복음선포의 실력에 있어서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학적, 사상적으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
2. 조선신학교는 경건하면서도 자유로운 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가장 복음적인 신앙에 도달하도록 지도할 것.
3. 교수는 학생의 사상을 억압하는 일이 없이 동정과 이해를 가지고 신학의 제 학설을 소개하고 다시 그들이 자율적인 결론으로 칼빈신학의 정당성을 재확인함에 이르도록 할 것.
4. 성경연구에 있어서는 현대비판학을 소개하며, 그것은 성경 연구의 예비적 지식으로 이를 채택함은 신학수립과는 별개의 것이어야 할 것.
5. 어디까지나 교회의 건설적인 실제면을 고려해 넣은 신학이어야 하며 신앙과 덕의 활력을 주는 신학이어야 한다. 신학을 위한 분쟁과 증오, 모략과 교권의 이용 등은 조선 교회의 파멸을 일으키는 악적이므로 삼가 그러한 논쟁을 하지 말 것.⁶⁸⁾

67) 윗글, 75-76쪽.

68) 한신대학 50년사 편찬위원회, 『한신대학 50년사』,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0, 21-22쪽.

본래 목사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평생 사업을 염두에 두었던 김재준은 결국 신학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됨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재준 자신이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신학자나 목사가 아닌 교육자로서 자신의 미래를 청사진으로 그려볼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아오야마학원 신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었다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는 김재준의 언급은 그러한 사실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 김재준은 송창근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자신이 유학을 떠나는 목적에 대하여 청사진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만큼 촌에서 일했으니 이제 부터는 네 공부를 해야 하지 않느냐?”, “다들 고학하는데 넌들 못하겠나” 하며 “여비가 마련되는 대로 덮어 놓고 동경에 오라”고 하였던 송창근의 권유에서 동기가 유발 된 김재준의 일본 유학은 그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덮어 놓고 시작한” 공부였던 것이다. 간신히 일본에 도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마련한 채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간다는 신념”으로 시작했던 일본 유학이었기에 그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⁶⁹⁾

아오야마학원에서의 김재준은 고학을 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정규학생이 아닌 청강생 신분이었고, 수업기간도 한 학기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기금, 학우회비, 기숙사비 등도 한 푼 낸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 논문으로 『바르트의 초월론』을 제목의 논문을 제출한 김재준을 정규학생으로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아오야마학원 신학부에서 배려를 해준 덕분에 그는 아오야마학원 신학부를 졸업할 수 있었다.⁷⁰⁾

그가 아오야마학원에서 인상 깊게 경험했던 ‘자유’는 이후 미국에서 신학

69) 김재준, 윗글, 62-64쪽.

70) 윗글, 68-76쪽.

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아오야마 학원 신학부’에서 접하게 되었던 ‘자유주의 신학’⁷¹⁾이 아닌 ‘아오야마학원’에서 접하게 되었던 학풍인 ‘자유’가 말이다. 그러한 사실은 필자가 이 논문의 서두에 언급했던 김재준의 편지, 그가 미국 유학을 마친 후 귀국을 앞둔 어느 날, 당시 조선에서 활동했던 어느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답신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⁷²⁾

김재준은 미국 유학 중에 프린스턴신학교에서 1년 과정을 마친 후 웨스턴신학교로 학적을 옮겨 그곳에서 수사(修士)학위와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지만 그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신학사와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박형룡과는 달리 프린스턴신학교에서 1년을 공부한 후 웨스턴신학교로 옮긴 후 그곳에서 수사(修士)학위와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다만 김재준이 그의 자서전인『범용기』에 “(웨스턴 신학교가) 학비, 기숙사비 모두 면제였고 장학금은 프린스톤 보다 백 불 더한 삼백불이었다.”⁷³⁾ 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된 바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김재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그가 프린스턴신학교를 떠나 웨스턴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1925년 이래 일본 청산학원에서 공부할 때 나 자신은 자유주의 신학이 전성할 때 였습니다. 그러나 졸업할 때는 자유주의 신학이 막다른 골목에 이마를 부딪친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것을 양기(楊棄)할 길을 찾아 고민하였습니다. 그 후 곧 프린스턴에 가서 메첸 박사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많은 배움이 있었으나 그곳을 떠날 때 나는

71) 그는 당시 청산학원의 신학의 자유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신학 사상에 있어서는 그 당시 뉴욕 유니온 그대로였던 것 같다. 신약 교수 마쯔모도는 뉴욕 유니온에서 신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왔다. 구약 교수 와다나베는 독일 튜빙겐 박사였다. 그러니 ‘자유’를 넘어 ‘과격’에 가깝다 하겠다. 다만 조직 신학만은 베리 박사 담당이어서 비교적 보수였으나 근본주의는 물론 아니었다.” 윗글, 76쪽.

72) 이 논문 4쪽의 하단부에 인용된 김재준의 편지글을 볼 것.

73) 윗글, 91쪽.

극단의 정통주의 신학이 역시 막다른 골목에서 스스로 발악하는 고민상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 후 만 2년 동안 나는 이 두 신학을 양기하면서 둘을 다 살리는 건설적인 참된 '정통' 신학이 수립되기를 기원하여 스스로 노력해 왔습니다.⁷⁴⁾

이와 같은 언급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 김재준이 아오야마학원 신학부에서 접했던 '극단의 자유주의 신학'과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접했던 '극단의 정통주의 신학'을 양기하면서 둘을 다 살릴 수 있는 참된 '정통'주의 신학의 수립을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서 웨스턴신학교에서의 공부를 결심한 것이었다면 그가 '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아우른 폭넓은 신학적 탐구를 목적으로 프린스턴신학교에서 1년을 공부한 후 웨스턴신학교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재준의 이와 같은 행보(行步)는 박형룡과는 자못 다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박형룡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부터 방어적이고 분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부터 방어적이고 분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8년 전 이 논문의 저자(박형룡 자신)가 미국에 학업 차 건너가고 있었다. 그는 특별히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태평양을 향해하던 어느 날 그는 일본에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들이 발행하는 잡지를 읽게 되었다. 그는 한 글을 읽는 도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떠올랐다. 그 글은 "어느 무신론자의 종교관"이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학문적이지는 않았으나 극단적인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쓴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이었다. 이 글을 읽는 가운데 필자는 기독교의 신앙인들을 대신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⁷⁵⁾

74) 김재준, 『대전 전후 신학사조의 변천』, 『김재준저작전집 제1권』,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1, 375-76쪽.

75)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제15권),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8, 15쪽.

박형룡은 당시 제일유학생들이 발행하였던 잡지인『학지광』에 실려 있던 반기독교적인 논조의 글을 보고 분개하게 되었고 이는 장차 그가 미국에서 변증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 같은 박형룡의 태도를 통해 사상적으로 미숙했던 20대 청년의 모습이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시『학지광』이 세속적 인문주의에 그 사상의 기반을 둔 문예지로서 반기독교적 논조를 보이는 글들이 다수(多數) 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⁷⁶⁾ 그 또한 사상적으로 미숙했던 20대 젊은이들의 미숙한 사상에 의한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미숙했던 청년 박형룡이 마찬가지로 사상적으로 미숙했던 청년들의 반기독교적 논조의 글들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리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분리적이고 방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박형룡은 ‘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아우르는 폭넓은 신학적 순례를 할 수가 없었다. 박용규의 표현을 차용한다면 그야말로 ‘알짜 정통주의’⁷⁷⁾의 틀 안에서 자신의 신학을 정립시켜나갔던 것이다. 더욱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던 박형룡으로서는 김재준이 그랬던 것처럼 폭넓은 신학적 순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박형룡과 김재준은 서로 상반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재준이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신념”으로 “뒤통고 강행했던” 유학 생활이었던 것과 다르게 박형룡은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신학 공부에 있어서 김재준과 박형룡의 상반된 시작은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도 상반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재준이 뚜렷한 목적을 지니지 않은 채 일본 아오야마학원 신학부에서 공부했던 것과는 달리 박형

76) 장동민, 윗글, 63쪽.

77) 박용규, 윗글, 15-16쪽.

룡은 마포삼열을 비롯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원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 속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던 것이다. 장차 한국교회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말이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모습은 귀국 후에도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귀국 후 박형룡은 평양신학교 교수로서, 『신학지남』의 기고자로서 한국교회의 핵심적인 신학자로 자리매김하여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김재준은 “선교사의 소개도 없이 노회나 총회의 추천도 없이 제멋대로 나갔던 사람을 이제 와서 우리가 알게 뭐냐”는 태도를 보였던 노회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주류’로서, 변방의 학인으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형룡이 서북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평양에서 한국교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는 동안 평양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간도로 밀려나갔던 김재준의 모습은 그러한 사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는 말

‘자유인’으로서의 김재준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를 둘러쌌던 배경과 경험들이 하나, 하나 김재준이 자유인으로서 형성됨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나, 하나 체득할 수 있었던 김재준은 이후 ‘무소속’의 자유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하기 원하는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재준은 철저한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철저한 바르트주의자도 아니다. 정통주의자는 더욱 아니다.”라고 표현했던 최덕성의 언급은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나는 무슨 ‘주의’에 내 신앙을 주조할 생각은 없으니 무슨 ‘주의자’라고 판박을 수가 없오.”라고 표현했던 김재준 자신의 언급 또한 최덕성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최덕성과 김재준 자신의 표현은 상반된 의미

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최덕성의 경우 김재준이 “정통주의냐? 혹은 자유주의냐?”라고 하며 어느 편인지 선택을 묻는 의미에서 김재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던 것이었다면, 김재준은 사상의 검증을 강요하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획일화시키기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⁷⁸⁾

이와 같이 ‘김재준 다운’ 생각⁷⁹⁾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닥칠 운명을 예견하는 것은 그 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한국교회에서의 ‘비주류’ 혹은 ‘변방’ 더욱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떠돌이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평생에 걸친 대립적 경쟁 관계를 형성했던 박형룡이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신학지남』의 편집인으로, 보수적인 주류 한국교회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김재준은 당시 한국교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서북지방의 평양에서 밀려난 채, 변방의 땅 간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북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과 선교사들과 서북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원했던 보수적 신학이 아닌 폭넓은 신학을 섭렵하였던 김재준의 경험이 이와 같이 변방으로 밀려날 수 없었던 주요한 이유가 되었음은 자명한 것이었다.

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김재준이 걸어온 길은 이른바 ‘자유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자유인’으로서 삶을 걸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그는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였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은 도리어 자유인 김재준을 제약하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준은 보수적인 한국교회의 풍토 속에서서 변방의 인물로서, 떠돌이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자가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변방 함경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간도로, 간도에서 조선신학원 설립과 기독교장로회로서의 분립으로 말이다.

함경도 변방에서 탄생하여 간도로, 기독교장로회 분립으로 평생에 걸친 떠

78) 구미정, 『사이/너머 횡단하다: 삶의 신학자 김재준』, 『현상과 인식』, 통권 117호, 2012, 52쪽.

79) 윗글, 52쪽.

들이의 삶을 살았던 김재준은 자유인이하고자 하였지만 한국교회는 그를 일컬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일컬었기에 그는 평생에 걸쳐 제약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그와 평생에 걸친 대립적 경쟁자 관계를 형성했던 박형룡은 평양신신학교의 교수로, 『신학지남』의 편집인으로, 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주류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치한지 30년이 넘는 오늘날에도 적기 않은 교회들로부터 이른바 '정통주의의 수호자'라고 하는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으로 박형룡과 김재준의 삶은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삶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한국교회의 핵심으로, 다른 한 사람은 한국교회의 변방의 인물 혹은 떠돌이로 말이다. 오늘날 김재준을 일컬어 "근본주의와 독재에 맞선 예언자적 양심"⁸⁰⁾이라고 칭송하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평가 또한 오늘날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한 '변방의 메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전히 김재준은 한국교회의 풍토에서 '자유주의 신학자'이며 성경의 오류를 주장한 '성경 파괴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다.

필자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김재준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지나친 비판도, 지나친 칭송도 배제된 객관적 시각에서 말이다. 어쨌거나 김재준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기에, 한국전쟁 이후 이데올로기의 시각으로 해석되었던 현대사의 사건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처럼 김재준 연구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김재준을 새롭게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특정한 인물이 아닌 한국교회의 역사 전반을 새롭게 연구하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80) 천사무엘의 저서『김재준, 근본주의와 독재에 맞선 예언자적 양심』의 제목이다. 천사무엘, 『김재준, 근본주의와 독재에 맞선 예언자적 양심』, 살림, 2003.

〈참고 문헌〉

1차 자료

- 김경수. 「한국 교계에 반짝이는 별」,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장공이야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 김양선.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 김재준. 『범용기』, 풀빛, 1983.
- 김재준. 『인간이기에』, 향린사, 1971.
- 김재준. 「대전 전후 신학사조의 변천」,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김재준저작전집 제1권』,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1.
-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제15권), 한국 기독교교육연구원, 1978.
- T. Stanley Soltau, 「HYUNGYONG PARK, THE SAINTLY SCHOLAR」,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6.
- 이수찬 편집.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7회 총회 보고서』, 고려인쇄소, 2012.

연구논문

- 구미정. “사이/너머 횡단하다: 삶의 신학자 김재준”, 『현상과 인식』, 통권 117호, 2012.
- 김길성. “총신 100년과 그 신학적 정체성”, 『신학지남』 통권 제267호, 2001.
- 이오갑. “자유 의 맥락에서 본 장공 김재준의 삶과 사상”, 『신학사상』 제 141집, 여름호, 2008.
- 박용규. 「1930년대 신학: 정경옥의 자유주의, 김재준의 진보주의, 박형룡의 정통주의」, 제29 회 “長空사상연구 목요강좌, 2012, 10.
- 박재순. “장공 김재준의 마음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장공사상 연구 논문집』,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단행본

-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 간하배. 『한국기독교신학사상』, 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 김경재. 『김재준 평전』, 삼인, 2001.

- 문동환. 『문동환 자서전: 떠돌이 목자의 노래』, 삼인, 2009.
_____. 『바벨탑과 떠돌이』, 삼인, 2012.
- 박용규. 『한국장로교신학사상사』, 총신대학출판부, 1992.
- 윤병석.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3.
- 유영렬 엮음. 『한국기독교 사학자 김양선』, 숭실대학교출판부, 2001.
-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범우사, 1994.
- 천사무엘. 『김재준, 근본주의와 독재에 맞선 예언자적 양심』, 살림, 2003.
- 최덕성. 『에큐메니칼 운동과 다원주의』, 본문과 현장사이, 2005.
- 한신대학 50년사 편찬위원회. 『한신대학 50년사』, 한신대학교출판부, 1990.

인터넷 홈페이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홈페이지 <http://www.gapck.org/index.asp>

뉴스앤조이 인터넷 신문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925>

〈Abstract〉

A Study of Kim Chai-Choon's 'Free Thought'

Hong, In-Pyo

Kim Chai-Choon was the outsider. He spent his young ages in the mountainous region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in Korea which was very cold in winter and lacked food. It was the frontiers' soil, in which slash-and-burn farmers should cultivate on the hillsides, not on the fertile soils. He was born in such a place and raised up in the atmosphere of freedom by his parents.

After completing his study in Japan and U.S., his main stage was Gan-do located on the periphery, not Pyeongyang which was the central area of Northwestern Christianity in Korea. He was working here for three years. This region was where the poor people had been gathering together to survive from the disaster and to escape from the corrupt officials since the late Chosun Dynasty.

Kim has not been in the spotlight because of the title, 'a liberal theologian'. However, Kim did not accept that being categorized into any kind of '-ism.' He just wanted to be recognized as 'the one who runs toward Christ' and to be called 'Christ-ist.'

While his rival Hyung-ryong Park was working within the

institutionalized 'mainstream education' and had relationship with missionaries from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Kim was taught in the informal education and could not have the chance to have relationship with foreign missionaries. While Park studied in the U.S. by the recommendation of missionaries, Kim could have the chance to study theology broadly from 'liberal theology' to 'conservative theology' because he went to the U.S. without any recommendation of foreign missionaries.

He, who was influenced for these reasons, lived belonging to a fringe group. His born place, educational background, his broad theological thoughts and his non-relationship with foreign missionaries. Because all of these facts, he could work as the outsider in the free atmosphere and caused him to be called as a free man, a liberal theologian or 'a thinker of freedom.' However, I say that Kim was a free man and a theologian of freedom but 'a liberal theologian' or 'a liberalist.'

Key Words : Kim Chai-Choon, free man, theologian of freedom, outsider